

▲방계 동정

●서울소방학교장 취임

내무부는 지난 93년 12월 30일 서울 소방학교장에 이명웅 충남소방학교장을 전보 발령한데 이어 충남소방학교장에 임용배 상주 소방서장을 전보 발령했다.

●아파트 안전수칙 배포

인천직할시 소방본부(본부장 문종득)는 아파트 화재 예방의 일환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실 안에 소화기 사용법과 긴급 사상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아파트 소방안전 수칙”을 급속도로 제작하여 관내 9백4개 동의 엘리베이터 2,447개에 부착토록 했다.

●행정 규제 완화

서울시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행정 규제 사항을 폐지 완화하기로 결정, 94년 3월10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위험물 판매 취급소의 4대 문안 지역의 허가 금지와 10m 이내 주민 동의서 첨부를 폐지하는 한편, 석유판매소 허가 규제중에서도 4대 문안 지역 허가 금지와 10m 이내 주민동의서 첨부를 폐지토록 됐다.

●국가 기간 시설 안전점검

지난 3월 12일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부처 장관 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 기간 시설의 위해 방지 및 해빙기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별 세부 안전점검 일정을 확정, 실시에 들어갔다. 주요 점

검 시설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봄철 화재 예방 점검-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5천64개소의 대형 화재 취약대상, 6만9천3백44개소의 위험물 취급업소, 7백35개소의 재래식 시장, ○유·도선 안전점검(3월15일부터 4월 15일까지), ○2천5백33개소의 석유·가스 공급 및 저장 시설, 전력 시설 및 광산(3월20일부터 3월 31일까지), ○2백51개소의 화재·폭발·가스 누출 등 위험 사업장(3월28일부터 4월27일까지), ○2백13건의 연립주택·공동주택·해안시설공사(3월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요 통신 시설(3월15일부터 4월3일까지), 외에 화약류에 대한 안전점검 등이다.

●동래소방서 최우수 소방기관 선정

내무부에서 전국의 1백8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소방활동 평정을 한 결과, 부산 동래소방서가 93년도 전국 최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 표창과 소방장비 구입 시상비 4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소방활동 평정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역 소방 활동의 능률 향상과 소방 행정의 책임성 등 소방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1년간의 화재 예방 활동 실적, 화재 진압 활동 실적, 봉사 소방 활동 실적 등 7개 항목 20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우수 1, 우수2, 모범3, 장려4개 등 10개 소방관서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화협 동정

●영, 로이드사 시험장비 지정 현장 검사

지난 2월 1일부터 2박3일간 영국 로이드사의 관계자가 우리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를 방문, ‘시험 장비 지정’적격 여부를 조사했다. 방재시험연구소가 로이드사로부터 시험 장비 지정 전격 업체로 인정받게 되면, 국내 선박용 격벽, 갑판문, 상장재, 천장재, 댐퍼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인정서를 필요로 할 때 방재시험연구소에 의뢰, 로이드사가 인정하는 ‘성적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원 총회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25일 협회 임원진과 원수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94회계연도 업무 계획과 회계별 예산(안)에 대한 사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4업무 목표를 •손해보험 위험관리 기능 강화, •방재 업무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에 두고, 이를 위해 손해 보험 위험관리 센터로의 역할 수행 강화, 점검업무의 효율성 제고, 수익성 업무와 관련된 기술 지도, 보급 업무의 확대, 방재시험연구소의 내실화 및 활성화, 특수건물에 대한 점검과 보험의 사후 관리 철저, 업무 능력의 향상과 직무교육의 강화를 강조했다.

●화재보험 우량 물건 할인 현장 조사 기관 위촉

지난해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특수건물 및 비특수

보험계 동정

건물의 화재보험 우량물건 할인 현장 조사 업무가 앞으로 협회에서 계속 전담하게 되었다.

우량물건 할인 제도는 화재 위험만을 담보하는 공장 물건중 보험가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물건으로서 동일 구내의 과거 5년간 화재 보험 계약의 평균 손해율이 40% 미만인 고액의 기업형 물건에 대해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현장 조사를 실시, 그 성적에 따라 화재보험요율을 최저 2%에서 최고 25%까지 할인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 서울 동부 지부 이전

우리 협회는 여의도 본부에 있던 서울 동부지부를 지난 3월17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태문빌딩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종로·동대문·성북·중랑·도봉·노원·성동·강남·송파·강동구 및 수원지역과 성남지역의 특수건물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과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새로 이전한 서울 동부지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74-2 태문B/D 7층. Tel 424-2742~6

● 조직 일부 개편

우리 협회는 교육 업무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위해 기획조사부에서 주관하던 대내 교육 업무와 기술관리부에서 주관하던 대외 방재기술 교육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의 홍보부를 교육홍보부로 개편, 교육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직통) 783-2140. ●

● 력키사 창립 35주년 기념식

력키화재해상보험(주)는 지난 1월 3일 본사 14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3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갖고, 정년 퇴직자 및 10년 이상 장기 근속 직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 삼성사 창립 42주년 기념식

삼성화재는 지난 1월 26일 창립 42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장기 근속 사원과 우수 대리점, 우수 설계사 및 모범사원 등 총 2백98명을 표창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12월 6일 한국화재에서 상호를 변경하고, 제2창업을 다짐바 있다.

● 모든 보험거래 서명으로

생명보험에 이어 4월부터 자동차 보험 등 손해 보험에 가입할 때도 서명만으로 계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계약자의 기명 날인으로만 가능했던 자동차 보험·화재 보험·해상 보험·보증 보험·특종 보험 등 각종 손해 보험의 계약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도 가능토록 손해 보험 상품 관리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4월부터는 보험의 계약과 보험금 수령, 대출 등 모든 보험 거래가 서명으로 가능하게 됐다.

● 국제사 대표이사 선임

국제화재해상보험(주)는 지난 2월 21일 김영만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경서 사장은 부회장에 선임했다.

● 제일사 창립 45주년 기념식

제일화재보험(주)는 지난 3월 22일 창립 45주년을 맞아 20년 장기 근속자 7명과 10년 장기 근속자 90명을 표창하고 “제2 창업 대혁신”을 선포했다.

● 삼성화재 “무료응급서비스” 실시

삼성화재는 지난 3월 10일부터 회사 업무용과 사원 개인용 차량 1백대를 이용, ‘사고·고장 차량 무료 응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삼성화재의 기동 보상 서비스 차량과 선정된 보상 직원의 개인 승용차에 고장 차량 응급 조치 장비와 서비스 용구를 갖추고, 운행중 발견되는 고장 또는 사고차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대출 관련 보험계약 무효시 독촉없이 대출회수 불가

대출과 관련된 보험 계약이 무효되거나 소멸된 경우라도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출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과 관련된 독점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다른 보험 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면, 대출은 유효할 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상당한 기일의 최고없이 기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혀 그동안 관행화돼 왔던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기한전 대출 회수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이 해소됐다. ●